

“야만의 시대 살아낸 유족들에게 경의”

제주지법, 16일 수형인 335명 '재심 선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죄 릴레이
 선고 순간엔 눈물 섞인 박수·환호성 가득

피고인의 법정구속이 가장 많이 이뤄져 '절망의 법정'으로 일컬어지던 곳이 16일 만큼은 하루종일 밝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300명이 넘는 제주 4·3수형인들이 70여년 만에 누명을 벗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3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 혹은 내란실행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3수형인 335명(생존 2명)에 대한 재심 재판을 열고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4면

생존수형인 2명을 제외한 333명은 1948~1949년 사이 국방경비법 위반 혹은 내란실행 등의 혐의로 적법한 절차없이 군사재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 받고 옥지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다.

이들은 모두 형무소 수감 중 6·25 전쟁이 발발, 총살 혹은 행방불명되면서 이날 재판에는 유가족이 대신 참석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21건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피고인 이름을 호명하면 유족 1~2명만 입장하는 방식으로 법정 내 혼란을 최소화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제주4·3 당시) 좌익분자 500명을 잡자고 3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그러한 야만적 시대를 살아낸 유족들에게 재판부는 경의를 표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는 눈물 섞인 박수와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법정에서 소감을 밝힐 기회를 얻은 박영수(수형인 박세원의 아들)씨는 "저승에서 온 330여명의 영혼에 절을 올리려 했는데, 법정에서는 절하는 것이 금지라고 한다. 목례라도 올리겠다"며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와 무죄를 구형한 검찰에 감사드린

다"고 말했다. 모든 재판이 끝난 후에는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4·3 수형인 335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의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상국기자

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회는 "오늘 판결은 70여년 전 씩씩했던 빨갱이의 굴레를 벗고 진정한 명예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며 "또 부모·형제의 빈자리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어려움과 연좌제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유족들도 그동안의 한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회는 이어 "군사재판을 통해 죄인의 낙인이 찍힌 희생자가 수형인명부상으로 2530명"이라며 "아직 명예회복의 기회조차 준비되지 않은 억울한 희생자가 더 많다.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가 더 많다"는 뜻이라고 말한 뒤 향후 추가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아흔 넘은 4·3생존수형인도 “무죄”

‘종달리 6·6사건’·‘북촌 뼈라 사건’ 당사자
 고태삼·이재훈 할아버지 재심서 무죄 선고

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생존수형인' 2명도 74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소요와 내란실행방조 등의 혐의로 수형생활을 했던 고태삼(92)·이재훈(91) 할아버지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출신인 고태삼 할아버지는 19살이던 1947년 6월 6일 동네청년들이 모이는 '민청

집회'를 덮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단기 1년형을 선고 받고 인천형무소에서 1년의 형기를 복역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 할아버지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정신을 잃을 만큼 때를 맞는 등의 고문을 받으며 허위자백을 강요 당했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출신인 이재훈 할아버지는 18살이던 1947년 8월 13일 경찰이 뼈라를 단속하는 과

정에서 북촌마을 주민에게 총격을 가한 것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인천형무소에서 징역 1년을 복역했다. 이 할아버지 역시 경찰서에서 물고문을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 받았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살도 넘기지 못한 청소년에게 반정부활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인간의 존엄을 훼손시키고, 삶을 파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피고인들도 자신의 탓이거나 운명이라 여기며 하소연 한 번 시원하게 못했다. 오늘부터 편하게 주무시길 바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어제 문 대통령 주제로 진행… 재가 후 공포 예정
 청와대 “희생자·유족 고통 치유할 추가 조치 마련”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4·3특별법은 제16조에 '국가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문화해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협동연구 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4·3사건 당시 군사재판 받은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하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

가 일괄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가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보완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서 4명(여2, 야2)을 추천하게 했고, 추가 진상조사 개시와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할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을 공포안은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부미현기자

기초수급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추가 지급

도, 올해 지원 계획 공고
 23일~내달 5일까지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가 16일 올해 청소년 육성기금 장학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지원 규모는 4억원으로 오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 학업을 이어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대학생에게는 '생활비 장학금'이 추가 지급된다.

도는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4억 원 중 1억 원을 중위소득 30% 이하와 성적 기준 80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에게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생활비 장학금은 1인당 100만원씩 총 100명에게 주어진다.

나머지 3억원엔 학자금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청소년·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및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소년 ▷다문화가족 및 중증장애인가족 ▷의사상자 가족 자녀 ▷새마을지도자·의용소방대원·청소년지도위원·지역자원봉사단원 자녀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보는 만큼 제주가 넓어집니다
 읽는 만큼 제주가 달라집니다]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송이화장품·화장품원료·송이천연염색·송이기능성제품

주식회사 송이산업
 Scoria Industry Co., Ltd.

박 광 열 대표이사

본 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사로 76-39
 T. 064-796-2422 F. 064-796-6839
 연구소. 제주시 서사로 154(삼도1동, 한라일보사 1층 1호)
 T. 064-744-1744 F. 064-722-1744